



미 증시, 저점 매수세 유입에도 금리 급등으로 전강후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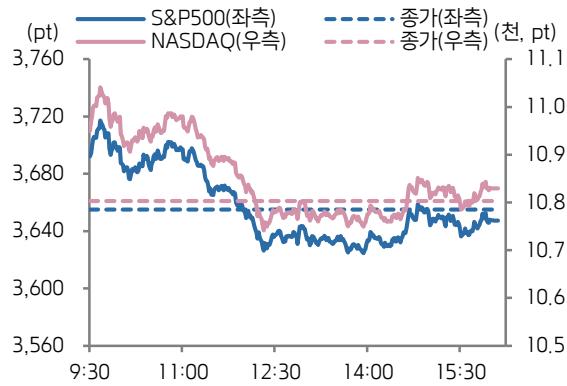
27 일(화) 미국 증시는 저점 인식 속 파운드화 가치 소폭 상승, 일부 연준 위원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채 10 년물 금리가 재차 급등하여 3.9% 수준까지 도달한 부담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채로 마감 (다우 -0.43%, S&P500 -0.21%, 나스닥 +0.25%).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공격적인 긴축 속도에 따른 생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정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은 적절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긴축에 나설 위험도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 한편 매파적 성향의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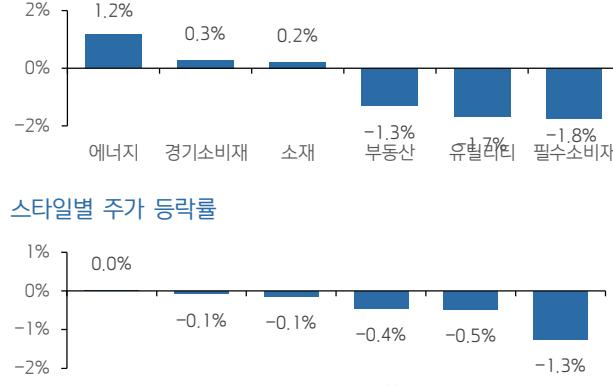
주택지표 상승세는 둔화되고 심리지수는 개선된 반면, 내구재 주문은 견조. 7 월 S&P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6.1%(예상치 17%, 전월치 18.7%) 증가하며 상승세 둔화. 집계측은 4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하락 속도는 역대 최대라고 언급. 8 월 신규주택매매는 전월대비 28.8%(예상치 -2.2%, 전월치 -8.6%) 증가 기록. 미국 9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08(예상치 104.5, 전월치 103.6) 기록하며 두달 연속 상승.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145.3에서 149.6,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75.8에서 80.3으로 개선. 8 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0.2%(예상치 -0.3%, 전월치 -0.1%), 운송을 제외한 핵심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0.2%(예상치 0.2%, 전월치 0.2%) 증가. 자동차, 항공기 산업을 제외한 비방위 산업 자본재 출하는 전월대비 1.3%(예상치 0.2%, 전월치 0.6%)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

업종별로 에너지(+1.2%), 경기소비재(+0.3%), 소재(+0.2%) 업종은 강세, 필수소비재(-1.8%), 유틸리티(-1.7%), 부동산(-1.3%) 업종은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으로 엔비디아(1.51%), 마이크론(3.48%), AMD(1.31%), AMAT(1.46%) 등 주요 반도체 관련주 역시 반등. 알파벳(-0.68%), 아마존(-0.64%), 메타(-1.44%) 등 주요 시총 상위기술주들은 지수와 함께 상승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 마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647.29	-0.21%	USD/KRW	1,422.81	-0.61%
NASDAQ	10,829.50	+0.25%	달러 지수	114.17	+0.06%
다우	29,134.99	-0.43%	EUR/USD	.96	+0.02%
VIX	32.60	+1.05%	USD/CNH	7.18	+0.03%
러셀 2000	1,662.51	+0.4%	USD/JPY	144.79	-0.01%
필라. 반도체	2,398.04	+1.0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153.35	+1.28%	국고채 3년	4.310	-23.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210	-12.2bp
Eurostoxx50	3,328.65	-0.42%	미국 국채 2년	4.283	-5.8bp
MSCI 전세계 지수	559.72	-0.13%	미국 국채 10년	3.945	+2.1bp
MSCI DM 지수	2,403.88	-0.1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88.58	-1.91%	WTI	78.5	+2.33%
MSCI 한국 ETF	49.21	-0.63%	금	1636.2	+0.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률은 1424.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주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1. 미국 증시의 패닉셀링 진정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체크 사항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1.0%)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장전 동시호가 및 장중 수시로 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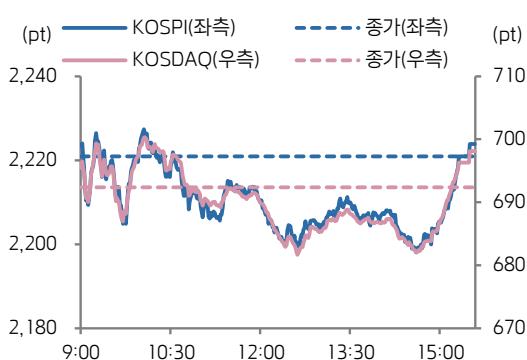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으며 여타 지수, 주요국 증시들도 9 월 FOMC 이후 출현했던 패닉셀링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큰 상태이기에 일종 주가 변동성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연말까지 점도표 상 추가적으로 125bp 인상을 시사한 9 월 FOMC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작금의 공격적인 긴축 불안이 완화되면서 증시의 본격 반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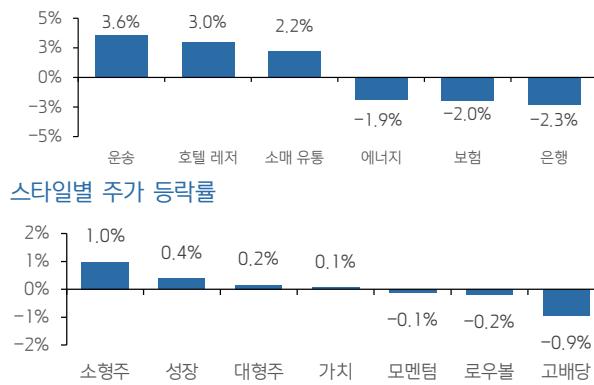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혹은 고착화를 얹누르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매파 시그널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은 타당함.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 내부적으로 고강도 긴축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물가, 고용 등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긴축 속도 전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일례로 대표적인 매파 선봉장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내년 봄까지 정책금리를 4.5%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이후에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상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현재 긴축은 적절하지만 그 속도가 과도해질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난 6월 FOMC 이후에 비해 9월 FOMC 이후에 의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음. 이 같은 의견차로 인해 한때 73%대에 근접했던 11월 75bp 인상확률이 53%대로 하루 만에 빠르게 감소한 상황. 이를 고려 시 현시점에서는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증시 하방이 크게 열렸다는 전제하에 주식 비중 축소 작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연준발 악재는 가격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으며 향후 발표되는 물가, 고용 데이터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 중 2,200선을 하회하는 등 매크로 악재, 신용 반대매매 물량 등 수급상 악재로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8%). 금일에도 낙폭과대 인식 속 미국 증시 패닉셀링 진정, 반도체 업황 바닥인식에 따른 마이크론(+3.5%)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1.0%)에 힘입어 주가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 다만, 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신용 담보부족 계좌(5 대 증권사 기준 월초 약 5,300 개 → 26 일 약 15,000 개, 언론보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통상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담보 유지비율(ex: 140%)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2 거래일 뒤에 반대매매가 나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일에도 반대매매 관련 물량이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tativ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